

그리스도의 신성의 영광을 해방함

I. 그분의 죽음에 의해 그분의 인성의 껍질을 깨뜨림으로—요12:24:

- A. 그분은 그분의 신성한 영광과 함께 그분의 신성한 생명을 담은 유일한 밑알이셨음.
- B. 십자가에 못 박힘, 즉 그분이 통과하신 침례(눅12:50)를 통해 그분의 인성의 껍질이 깨어졌을 때, 그분의 신성의 모든 요소들—그분의 신성한 생명과 그분의 신성한 영광—이 해방되었음.
- C.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, 그분의 죽음은 그와 동시에 해방된 그분의 영광을 지닌, 생명을 해방하는 죽음으로 여겨짐.

II. 그리스도의 신성의 영광을 해방함은 그분이 아버지께 의해 신성한 영광으로 영화롭게 되심(요 12:22-24)으로서, 그분의 죽음을 거친 그분의 부활로 귀결됨(눅24:26).

III. 그분의 사람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는, 그분의 아버지께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기도하셨으며(요17:1),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기도를 응답하셨음(행3:13).

IV. 그러한 영화롭게 되심은 그리스도를 그분의 성육신의 단계로부터, 마지막 아담이신 그분이 부활 안에 생명 주는 영이 되신 그분의 포함의 단계로 옮기는 전이(轉移)임.

주(註): 그리스도께서 영화롭게 되심은 그분의 상태와 상황에 있어서 엄청나게 바뀌시는 것일 뿐 아니라 그분의 본성과 요소와 본질에 있어서도 바뀌시는 것이다.